

오륙도 칼럼



이 훈 곤

#1. 뉴욕의 브루클린에 사는 다들드 웰드먼(86)씨는 전쟁의 트라우마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전쟁에 참전 후 복학한 대학은 6개월 만에 그만뒀고, 10년의 결혼 생활도 이따금 찾아온 발작과 정신적 고통으로 그리 평탄치 못했다. 다행히 사업은 잘 됐다. 그는 61세 때 뒤늦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았

다. 웰드먼씨는 그러나 자신의 삶을 흔들어 놓은 코리아를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사업체를 아들에게 넘겨주고 일주일에 두 번씩 병원 치료에 전념했다. 5년 정도 모든 걸 내려놓고 꾸준히 치료한 결과 의사로부터 정상 판정을 받았다. 6년 전 그는 코리아를 다시 찾았다. 짜여진 일정 대신 그가 묵습 겹고 싸웠던 경기도 수원 지평리와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했다. 그 곳에서 그는 비로소 평생 자신을 괴롭혀 온 그만의 한국 전쟁을 털출 수 있었다.

#2. 지난해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뉴욕의 최난단 스탠튼 아일랜드에 위치한 뉴욕성결교회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하나 열렸다. 교회는 이날 지하 친교실에서 '스탠튼 아일랜드 한국전쟁 참전용사회'와 그

가족들을 초청, 만찬을 베풀고 친교실을 '코리아 베테랑스홀(Korean Veterans Hall)'로 하는 명명식을 가졌다. 교회는 이를 위해 홀 정면에 태극기와 성조기, 그 아래에는 한국전에 참전한 미 해병대, 공군, 해군 등 6개 군의 대형기와 기념사진을 걸어두었다.

참전용사 한명 한명이 스토리

장석진 뉴욕성결교회 담임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10년 전만 해도 이 자리에 참전용사가 8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50명 남짓"이라며 "이역만리 아시아의 이름도 모르는 조그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용사들이 모두 돌아가시더라도 그들의 가족들과 인연의 끈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스탠튼 아일랜드 한국전쟁 참전

용사회'의 정식 이름은 'CPL Allan Kivlehan Chapter'. 우리말로 하면 '상병 앨런 키블리한 모임'이다. 앨런 키블리한은 이쪽 스탠튼 아일랜드 출신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맨 먼저 전사했다. 8남매 중 맏이었던 키블리한에겐 7명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를 모두 지금도 전사한 오빠를 기리기 위해 이 모임에 참석한다.

이날 키블리한의 여동생들은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선물 수여자는 참전용사회의 자원봉사자이자 뉴욕성결교회와 참전용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임명옥 권사. 그는 명명식을 앞두고 남구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비석에 새겨진 앨런 키블리한의 이름을 확인하고 카메라에 담아왔다. 아직 부산을 가보지 못한 여동생들은 사진 속 화장장 큰 비석에

새겨진 오빠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한 줄 이름이 담긴 한 장의 사진이 60년의 그리움과 슬픔을 달래줬던 것이다.

필자는 지난해 말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기사화하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갔다. 백발이 된 노병들은 피로 지친 코리아를 잊지 않고 있었으며 일부는 기억의 전장을 헤매며 여전히 그들만의 전투를 치르고 있었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한편의 소설이자 드라마였다.

스토리텔링으로 내실 기해야

유엔 전몰용사 2,300명의 영령이 잠든 유엔기념공원은 부산시민은 물론이고 참전 외개국(외교전 파견 5개국 포함)을 비롯해 국내외 관광객의 참배와 방문이 끊이지 않는

지구촌 유일의 UN성지다. 부산 남구는 최근 국가보훈처로부터 '8·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 받아 전국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UN도시'로 불려도 좋을 남구는 유엔기념공원 일대를 UN평화문화특구로 지정해 세계 평화의 성지로 그 위상을 올렸다. 이제부터는 외형 위주의 사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감동과 기록이 될 콘텐츠나 스토리텔링을 찾아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유엔기념공원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때로 하나의 이야기가 역사만큼 울림이 큰 법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제신문 국제부장**

신선대

<218>

채 규홍



부산 신고통문화운동

- 불법주정차단하기
- 교통신호 지키기
- 방화방지등 점등
- 통행속도 준수
- 무단횡단 안하기
- 버스전용차로 준수
- 중앙선 준수
- 안전띠 착용
- 나홀로 운행 안하기
- 정류장 정위차 정착

나의 생각

내년 2월에는 '스마일'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올해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부쩍 줄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세금'이 되었다고 말할 정도다. 이번엔 환급액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원천징수세액이 평균 10% 가량 줄어 매달 세금을 덜 때고 덜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20%에서 15%로 줄어들었고 장기주택미련저축소득공제가 없어지고 교육비와 의료비 등의 1인당 한도가 신설된 것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내년 연말정산은 세법개정 등으로 환급액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먼저 3월 출시 예정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으로 납입금액의 40%를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금액의 6% 가산세가 부과되고 펀드의 특성상 원금보장이 안될 수도 있다. 올해부터는 연간 4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아 온 연금저축과 각종 보장성 보험(공제한도 100만원)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 세금 감면혜택이 전반적으로 준다. 그래도 여전히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낮출 수 있다. 연금저축(신약, 보험, 펀드)은 연금계좌 납입액(연간 400만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해 주는데, 연간 400만원을 불입하

면 52만8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현금과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사용할 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 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30%인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 공제도 잘 챙겨야 된다.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나 학원비는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급식비,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료 도서구입비 등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영수증을 미리미리 챙겨 놓는 게 좋다.

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월세 소득공제도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이다.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가 월세를 지급한 경우 월세액의 60%를 공제해 준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도 누락되는 교육비나 의료비 등이 있다면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직접 챙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신고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간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남정흔 (세무사)**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당 빈 외대캠퍼스 공동화 막자

부산 외국어대학이 급정구 남산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우암동 캠퍼스로 드나드는 인적이나 차량이 급격히 줄어 대낮에도 쓸쓸년스럽습니다. 특히 운동장에서 산책을 할까하면 웬지 무서운 감마저 듭니다. 지

난 여름에는 도서관이 넓고 에어콘을 틀어놔 시원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시설은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측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조속히 기존 건물의 공동화를 막아 남아있는 건물과 시설을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조은선(감만동 석포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고양이 중성화사업 확대

'못골 성당 인근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요청을 하신 대연동 오랑쥬의 건의에 답변드립니다. 올해 남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포획·수술·방사)에 해당장소를 포함시켜 시행했으며, 길고양이 개체수가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이동훈>**

헌 교과서·교복 집중 수거

'교복, 교과서 등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재활용 은행 개설'을 건의하신 우정열회의 건의에 답변드립니다. 교과서와 참고서, 교복 등을 물려주고 물려받기 운동은 이미 많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주민주의원)에서도 지난달 18~28일 집중 수거기간을 정해 주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각 동 주

■ 기자수첩



“아내를 존경합니다” 경상도 남자의 뜨거운 눈물

얼마 전 남편과 남편 친구의 술자리가 있었다. 나는 뒤늦게 그 자리에 같이했는데 테이블 위에는 이미 많은 빈병들이 놓여 있었다. 평소 말수가 적은 그들이지만 술이 들어가 마음 깊숙이 쌓여놓은 심정을 하나씩 표출해내는데 있었다. 남편의 친구는 전라도에서 농기구 대리점을 하는 경상도 남자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전라도 땅에서 시작한 결혼생활. 삶의 터전을 넓히거나 지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비좁은 가게를 접고 이제 곧 새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머지않아 널찍한 새 가게로 이사하는 기쁨을 고향친구와 나누고 있던 자리였다.

그동안의 회한이 사무뎀던지 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고 끊었던 술가지 마시면서 감격해 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오늘의 이 영광은 아내의 땀"이라며 햇볕에 검게 탄 볼 위로 붉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이 아닌가. 눈물을 흘리는

그의 거친 손과 등성등성한 머리카락이 고단했던 삶의 여로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

"사랑을 넘어 존경한다"는 그의 아내는 오른손과 왼손발이 정상이 아닌 2급 장애인이다. 그런데다 무체체처럼 지극히 평범하다. 특성이 있다면 늘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는 점. 입꼬리를 올린다고 해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순 없지 않은가. 그를 올린 그녀의 비밀병기는 따로 있었다.

없는 집안 장남의 아내로 살아오면서 시대식구들을 살뜰히 챙겼다.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까지 무뎌뎌 남편인을 아내의 시린 마음을 눈치 채지 못했었다. 그들을 보살피는 정자 본인은 가난을 뛰어 나갔고 수도 없이 전셋집을 전전해야 했지만 불만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학창 시절엔 축구선수였고 별명이 '시니'일 정도로 성질이 불같은 남편을 순리라는 것이 아닌가. 눈물을 흘리는

고 깊었을 것이다. 게다가 위암에 걸린 그를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하기까지 그 인고의 나날들은 또 어떠했을까. "그런 아내가 없었더라면 자신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알마 되진 않지만 그가 가진 전부를 아내 앞으로 등기해 놓을 것이라고 했다. 설령 무슨 일이 있어 자신을 기만한다 해도 지금까지의 노고로 전혀 아깝지 않을 것이라는 그. 위암으로 인해 12년 만에 그날 처음 끊었던 술을 마셨다면 그가 털어놓은 진솔한 이야기들을 듣고 아내를 집안의 사사리를 잃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덕 볼 생각하지 마라'라고 했던 성철 스님의 주례사가 떠오른다.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덕을 보여줄까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더 많은 덕을 보여주겠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살아가면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길이었다. **박능숙 기자**

보건소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 안내

■ 치매 조기검진 실시

- 대 상 : 만 60세 이상 남구주민(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 검진내용
 - 보건소 : 선별검진(MMSE-DS) 결과 이상자는 정밀검진 의뢰
 - 협약업체 : 정밀검진(인지검사, CT, 혈액검사 등)
- 검진방법 : 보건소 방문하여 검사 후 이상자는 정밀검사 의뢰
- 문의사항 : 보건소 치매상담실 ☎(607-6424)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치료로 진단(상병코드 F00~F03, G30 중)
- 치매와 복용환자 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46,303	87,604	128,700	145,747	152,509	157,880	163,402	172,378	178,923
가정	49,336	(93,342)	(137,130)	(155,293)	(162,498)	(168,221)	(174,105)	(183,669)	(190,642)
지역	28,954	93,160	146,611	164,220	171,663	177,007	182,758	192,218	199,293
가정	(30,850)	(99,282)	(156,214)	(174,976)	(182,907)	(188,601)	(194,729)	(204,808)	(212,347)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지원금액 : 월3만원 (연36만원) 한도 내 당월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 구비서류 : 처방전(상병코드 F00~F03, G30 포함), 통장
- 신청문의 : 보건소 치매상담실 ☎(607-6422, 6424)

산행을 떠나요

<2014. 4.>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청암산악회	9(수)	합천 금성산	010-6778-3192
	약천산악회	16(수)	합천 가야산	010-4655-4370
용호동	용호산악회	27(일)	다양 수리봉	010-2593-0361
	제일산악회	6(일)	전남 곡성 설산	011-594-4192
	여명산악회	6(일)	경북 봉화 각하산 원두산	010-3554-4392
	환경산악회	6(일)	순천 금전산	010-3575-3448
	용신산악회	13(일)	군산 새만금 월영산	011-488-3307
	다산산악회	6(일)	고흥 팔영산	010-3870-2660
	금강산악회	6(일)	청도 남산	010-3865-9051
	21C산악회	13(일)	전남 완도 상할봉	010-6266-8525
용담동	청산산악회	6(일)	통영 사랑도 옥녀봉	010-8008-2087
	하미음산악회	13(일)	거제도 대곡산	010-9324-3424
감만동	썩산악회	20(일)	합천 오봉산	010-5269-5809
	문화산악회	27(일)	합천 황매산	016-564-8882
우암동	녹색산악회	27(일)	합천 가야산 만물산	010-3595-7692
	글로벌산악회	20(일)	전남 장흥 가자산	010-8287-1192
	즐거우산악회	27(일)	다양 도라산	010-2397-1133
	우남산악회	20(일)	충북 영동 천태산	010-7520-6666
문현동	우일산악회	6(일)	전남 고흥군 팔영산	010-3557-2847
	우암산악회	27(일)	전북 완주 운악산	010-6578-0488
문현동	문사산악회	13(일)	순천 조계산	019-558-2828
	문현2산악회	13(일)	통영 미륵산	010-3178-3065
원북리산악회	원북리산악회	20(일)	통영 사랑도	010-4564-7769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추진일시 : 2014. 3월부터 연중
- 간편납부 : >부산사이버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ARS 유료전화(1544-1414) >사용가능 신용카드 : 신한·삼성·롯데·현대·BC카드
- 문 의 : 남구청 세무2과 체납정리계 ☎(607-4241)
- 번호판 반환 절차 : 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② 남구청 세무2과 방문 ③ 체납액 납부 ④ 번호판 찾기